

제 8 장 얇은 곳 : 마음 열기

주제 : 기독교인에게 ‘열린 마음(open heart)과 ‘얇은 곳(thin places)’ 은 결국 기독교인이 가야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Heart”는 ‘깊은 나’를 표현하는 것으로 “영적인 나”와 “ego 의 나”로 나뉠 수 있다. 그러므로 나(I, myself, me, and mine)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장 큰 오해와 가장 큰 진실을 나타낼 수 있다.

닫힌 마음(closed heart)

닫힌 마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말하며 상대적으로 너무나 뚜렷이 살아있는 자아(ego)를 말한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9,10** 에서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라고 예언한 것과 예수께서 **마태복음 13:13,14** 에서 그 비유를 다시 언급한 것처럼 닫힌 마음은 오로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관점(self center) 으로만 삶을 보기 때문에 진실로부터 크게 단절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잠깐만 돌아봐도 결국 ‘나’라는 테두리 속에 싸여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다. 나의 돈, 나의 자식,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학교, 나의 국가, 나의 교회, 나의 종교 그리고 크게는 나의 하나님 등 **하나인 세상(삶:life)**이 수 없이 높고 많은 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언어는 바로 “내가 중심인 나 (self center)”이다. 마태복음 7:11 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라고 비유한 것도 닫힌 마음을 가진 나, 우리, 바로 이 사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

닫힌 마음은 나의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살인이나 무력을 써서라도 자신이 옳다고 고집한다. 그러므로 바로 자기 삶(life)을 속박(bondage)하고, 삶에 감사할 줄 모르며, 세상의 신비와 경이에 대해 무감각하며, 불의에 대해 아파할 줄 모르며, 타인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없다. 결국 자신의 삶이 외딴 곳에서 홀로 유배생활(self exile)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얇은 곳(thin places)과 열린 마음(open heart)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이 되려면 우리는 언제나 thin places 에 있어야 한다.

Thin places 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특별한 방식이다. 그것은 특별한 장소와 시간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성경에서 귀머거리가 듣고, 병어리가 말하고, 절름발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산것처럼 십자가에 죽은 나를 버리고 부활(중생; **born again**)했을 때 보이면 볼 것이고, 들으면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보이고 들린다.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의심할줄 알아야 한다

-**Thin places** 는 과거와 미래에 있지 않다. 오직 지금 그리고 현재에 있다. 그래서 **thin places** 는 존재한다.

Thin places 는 바로 지금 여기이다.

질문: 자신이 생각하는 **thin places** 는 어디이며, 어떻게 가는가?